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광주·전남 경제 살리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명품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대적인 지역 소비운동과 체계적인 마케팅·기술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지역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유통망

구조는 불황기 일수록 더 절실하다. 울산시민들의 현대차 사랑이 좋은 예다. 울산의 현대차 점유율은 80%를 넘어 90%에 육박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는 내 고장 제품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를 사주는 울산시민들의 애정이 뛰어난다.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고, 갈수록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는 광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광주·전남의 지역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유통망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마케팅·기술 적극 지원 세계 브랜드화… 지역제품 소비운동 펼쳐야

괴, 자금난에 따른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하청업체에 머물고 있다. 품질과 제품력이 뛰어나도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지원이 부족해 제값을 못 받거나 도태되는 경우도 많다.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고,

갈수록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는 광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에 기반을 둔 대형 유통점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서 지역상품들이 살 땅을 잃고 있다. 지역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업체 중 지역 업체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 식품과 침구류다. 롯데백화점은 450개 납품업체 중 21곳, 신세계백화점은 500곳 중 18곳이 지역 업체로 대부분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상품들의 입점을 외면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고집하며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 이불을 생산하는 '운현궁'이 대표적이다.

지역 대기업의 생산품 중에도 세계 명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들이 많다. 기아차의 쏘울, 금호 타이어, 삼성 광주전자의 냉장고와

세탁기, LED 반도체 등 광산업 제품, 포스코 광양제철의 철강제품, 여수의 석유화학 제품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업제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우는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명품 소비가 폐션, 자동차, 공산품, 농수축산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지역 제품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유통망 확대, 마케팅 등으로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호·이은미 기자 lion@kwangju.co.kr

盧 빠르면 주내 소환

정상문 전 비서관 긴급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수억원 대의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여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19일 오전 0시10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여러 개 찾아냈으며 이들 계좌에 들어있는 수억원이 정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뇌물인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돈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슬로우, 슬로우 청산도의 봄

제1회 세계 슬로우 걷기대회가 열린 19일,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 원도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씻노란 유채꽃이 지천으로 깔린 황톳길을 걸으며 무르익고 있는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느림의 미학'을 찾아 번잡한 도심을 떠나 온 사람들의 표정에 여유로움이 가득하다. <관련기사 2면>

/청산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사 57주년 특집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3면	물·사람의 도시 보르도 16·17면
광주의 미래 광산업	7면	여수엑스포 준비 어떻게 18면
여야 정책브레인 대담	8면	나로우주센터를 가다 19면
전남 F1의 모든 것	9면	미리보는 디자인비엔날레 22면
광주 U대회 유치 전망	11면	광주일보 배출 스티들 지금 23면
광주·전남 뉴파워 57인	12·13면	해태맨-KIA맨 베스트 31면

정부, 北 개성 접촉 제안 수용

정부는 19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당국자와 접촉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 21일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10여명을 북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군사 실무자와 6자회담 관련 외교 당국자간의 접촉을 제외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으며 동시에 통일부 당국자가 현 정부를

어처음 남북협의를 위해 북한 땅을 밟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기구인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04년 1월 체택한 '개성공

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측 인원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동위원회는 구성 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